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사람이 떠난 후, 눈시울이 붉다(IV)

귀 이끼, 배송 각 시인은 야구 게임과 삼례 의식을 나란히 놓은 '보내기 번트'라는 시를 통해 객관적 시점에서 바라본 고인의 이별을 그리고 있다. 다소 어둡고 침묵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적 전개에서 담담하게 씩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계로 고인을 보내노라는 의식이 바로 '보내기 번트'다.



박 여 범

용북중학교 교감·시인 문학박사·문학평가

탁, 탁, 탁, 흙이, 정하게 묻은 야구화를 방망이로 툭, 툭 털어내며 투수를 바라보다가 보내기 번트 시인에 기계적으로 어정쩡하게 드리밍 발망이는 두들실 떠오른 하얀 공보다 먼저 하늘하늘 드로를 타고 구름 너머 일루에 귀이끼, 배송 각으로 발러럼 누워 흐드러지게 웃고 있다.

-박여범, '번트', 전문- 마음껏 '방망이'를 휘둘러 보고 싶은 타자, 그런 타자 앞에 1루에 나가 있는 주자, 그리고 감독의 사인, 낫다 휘둘러 '흔들'을 치고 싶은 타자의 눈에 갑자기 '보내기 번트' 사인이다.

어정쩡하게 순발력을 발휘해 드리밍 방망이는 하늘을 향해 치솟

고 하얀 야구공보다 빨리 1루에 도착해서 발러럼 누워 있는 그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4번 타자, 후련, 감독의 심회, 인기, 환호성, 이 모든 것은 바로 '보내기 번트'에서 출판한다. 보내기 번트는 '희생'이다. 잔잔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소하면서도 분명한 가치를 지닌다.

'발러럼 1루에 누워 흐드러지게 웃고 있는 방망이' 처럼, 희생적인 마음으로 야구인이 가득한 누웠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누구나 누굴 수 있는 특색은 아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보내기 번트'다. 자국이 순간, '보내어' 할 번트가 있

다면, 공할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내 주는 것이 어떤까 서로 '달려하면' 그것은 '조모전'이 될 뿐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지 말자.

'보내기 힘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 던져 버려라. 미련은 미련을 키운다. 그 미련의 노예가 되는 것을 떠나보내는 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시퍼렇게 망들어도 어쩔 거여 허영게 살아야지 장다리꽃, 시리다.

- '내 삶에 무엇이 피었다 하여 뒷밭에 나가보니', 위의 책, 15쪽, 전문-

시퍼렇게 망들어도 좋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 주어진 삶을 비판하거나 다의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자. 자신이 파 놓은 구덩이에 빠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

나지. 눈물을 겨우지. 눈물 대신 희망을 준비하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자. 지는 것들의 이름을 부른다 보면, 우리 모두 울림 넘치는 파이팅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상과 같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을 불러 주지 않으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소중한 것이 많다.

내부나 '학습할'으로 '당연함'으로 '비쁘다'는 관계로 소중히 하거나 있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다볼 시점이 아닐까? 박주용 시인의 시집 지는 것들의 이름 불러 끄며 등해 고향에 대한 잔잔한 그리움이 지워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 보자.

충북 옥천 청사에서 태어난 박주용 시인은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2014년 (내일신문) 신춘문예(시 부문)로 등단했다. 고향 어운 마을 향년의 시는 서정적인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귀사한 것은 고향 선배님이자 내 친구 박원양의 형님이신 박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작품마다 다가오는 어수프레한 그리움에 빠져 들게 한다.

사설

전주의 얼굴 첫마중길

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전주의 얼굴이다. 전주시는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이 거리를 완전히 바꾸었다.

전주역 광장에서 첫마중길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예약의 도시답게 전주형 이동 갤러리 '꽃심' 전시장이 관광객을 반긴다. 33㎡ 남짓한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전시는 한 면을 통유리로 바꿔 누구나 숲길을 걸으며 유리창 너머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꽃심' 앞에는 얇은 연못이 있다.

분수대와 징검다리가 있는 이 연못에 물을 채우면 첫마중길 일대가 거울처럼 비춰진다 하여 '거울연못'이다. 첫마중길은 자발적인 식수 운동을 통해 이팝나무 100그루와 느티나무 230그루로 명품 숲을 이루었다.

중앙에는 수령이 수백 년이 된 팽나무 두 그루가 마치 고향 마을 당산나무처럼 우뚝 서 있다.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발을 위한 거리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콘크리트보다는 생명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

하는 전주 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길이다. 그래서 주변에는 청년들을 위한 가상·증강현실(VR·AR) 제작 지원 센터가 들어서 있다.

콘텐츠 제작 장비 및 시설 지원은 물론 입주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마케팅까지 지원하고 있다. IT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과 스타트업 발굴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길 건너편에는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매운터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제는 청년들의 도약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청년 행복 도시를 조성하는 일이다.

첫마중길은 단순히 관광객만을 위해 예쁘게 꾸민 길이 절대 아니다.

전주의 원래 얼굴을 회복하는 길이다. 첫마중길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다. 길과 광장, 사람과 자연, 예술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 공간이다. 앞으로 첫마중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세계 경제 선도하는 중국

갈수록 중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 와중에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도 그 기세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중국은 경제 사정이 미국과는 전혀 달라 보인다. 이미 지난해부터 회복세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충격을 떨쳐내고 빠르게 회복중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반등을 시작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분기에 2.8%까지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면서 하반기부터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계속 늘었다. 내수와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고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증권사들이 지금과 같은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9%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IMF는 8.2%, 경제협

력개발기구 OECD는 8%로 예측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예측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안정적으로 차단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중국은 올해 사오강, 즉 풍족한 중산층 사회 달성을 선포하는 한편 14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시작했다. 새로운 발전 모델인 '쌍순환' 전략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국내 대순환인 내수, 그리고 국제 대순환인 국제 무역을 서로 동력 삼아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내수 시장을 더 키우는데 집중하고, 밖으로는 중국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과연 계획대로 개혁과 개방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올해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상호 존중의식' 갑질 예방을 위한 첫 단추

우리말과 언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말을 처음 배우기가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다리, 사과, 굴 등과 같은 동음이의어가 많고 노랑다, 셋노랑다, 노르스름하다 등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많다는 것 외에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존칭어 때 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시집은 여느리가 시아버지께 "아빠님 밥 먹어"와 같은 반말을 구사하여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는 시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언어습득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어렵다는 존칭어를 이미 배우고 사용 또한 약속해졌음에도 존칭어 대신 거친 말투를 거리낌 없이 구사하며 일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거친 말투,

친분을 관계로 한 반말 등 은연중 몸에 베어버린 나쁜 언어 습관들로 인해 사이는 멀어지고 때론 격렬해지기까지 합니다

말은 마음의 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위든 이데든 상태를 존중하는 마음이 갖춰져 있을 때 그 표현 또한 공손해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존중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손한 표현이야말로 갑질을 예방하는 출발이라 하겠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소위 갑질의 근원은 상호 존중의식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교적 장유유서, 군부독재 등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권위적 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전통문화로 인식하기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갑질을 예방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양희용 무주경찰서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스라엘군이 집 철거해 흐느끼는 팔레스타인 여성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한 마을에서 한 여성이 이스라엘군이 무허가리하며 철거한 친척의 집 주변에서 울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